

기고

윤영민 화순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화순 역사문화자원과 함께한 호남 실학 이야기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과 융복합학 즉 4차 산업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먹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순은 역사적으로 광주광역시, 나주 혁신도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고인돌 유적의 최대 근거지이며 현대 과학기술의 초석을 만들어준 실학이 발전한 곳입니다.

전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와 생명화학 산업단지 그리고 백신특구 등 현대적 시설을 갖춘 융복합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선진적인 국가로 독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전쟁의 상흔을 전국에 품고 있으며 분단이라는 아픔을 겪은 나라임에도 세계 최초의 수학박물관인 마테마티쿰(mathe-maticum)과 뮌헨의 독일박물관(Deutsches Museum) 그리고 곳곳에 산재한 역사적, 현대적 산물들을 잘 보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인들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패전국으로써의 고통과 분단, 강대국들의 내정간섭 속에서도 스스로 지켜지는 자부심의 근거는 과거의 문화와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잘 보존하며 후손들에게 체험의 공간을 만들어주어 패배자의 예너지가 아닌 선구자의 자긍심을 키워왔다는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화순에는 실학을 상징하는 규남 박물관이 2011년에 개관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규남 하백원(1781~1844) 선생은 실학을 연구하여 자승거(自升車), 목우(木牛), 계영배(戒盈盆), 자명종(自鳴鐘) 뿐만 아니라 만국전도(萬國全圖), 동국지도(東國地圖) 등을 손수 제작하셨는데, 이는 가히 그 천재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실용 정신이 이미 젊은 시절에 뛰어난 유학과 경전, 지리, 산수, 율력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마을 이서에서 이보다 앞선 시기에 석

당 나경적(1690-1762)이라는 실학자가 활동했습니다. 석당은 선기옥형(璇璣玉衡, 혼천의), 자명종(自鳴鐘), 자용침, 자전마(自轉磨), 자전수차(自轉水車) 등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창조성을 발휘하여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선구를 이루었다 할 것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은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연과학은 수학, 물리, 생물, 화학, 지구과학을 일컫는데 유럽에서 선진적으로 연구 발전되어 우리가 따라 하기만 하고 우리의 자연과학은 없는 것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화순의 실학자들은 수학, 물리, 지구과학, 생물의 연구들을 해 오신 분입니다.

자연과학적 사고는 현상을 관찰하고 관찰된 현상을 이용하여 분석 및 실계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화순의 실학자들은 물과 천체 그리고 기계의 움직임을 연구하여 실현시켰을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 및 전국 지역으로 그 에너지를 전파하였습니

다. 순창의 여암 신경준, 장흥의 존재 위백규, 강진의 이여박, 다산 정약용, 고창의 이제 황윤석, 경기도의 담헌 홍대용, 전북의 서유구 등과 교류 및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자연과학을 연구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규남 하백원의 자승차도 해는 서구 유럽의 기계기술의 시발점으로 여기고 있는 하이드롤릭 램(기압식 양수기)과 상당한 자연과학적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양이나 조선이나 당대에 필요한 양수 기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학을 이용하여 기계기술을 발달시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뿐 아니라 천문과 공작기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방식으로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은 연구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서양은 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 발전하였던 것 뿐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역사가 성리학에 의한 문벌중심으로 진행되지 않고 서양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을 발달시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운 좋게 화순에서 호남의 과학기술로 이어지는 근거들이 여럿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발전시키고 후손들에게 울곧게 전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社說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미래통합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 국민이 경제 위기에 봉착하면서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동안 여야가 모두 전국민 지급을 약속했으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반대로 선회했다. 워낙 말바꾸기를 자주 일삼는 미통합이다보니 그럴 수도 있었으나 황교안 전 대표의 대국민 공약을 하루아침에 번복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미통합은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는 여당안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미통합 황 전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과 상충된 것으로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통합 정책위의장은 20일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를 살리는 데도 기여하지 않는다"라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들는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통합은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100조원을 투입하자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것이다. 이제는 보수야당도 과거 '발목 잡는 식' 반대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 여당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는 모습도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반대하면 좋아할 국민은 거의 없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지급할 9조7천억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조1천억원을 제외한 7조6천억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의 세출 구조 조정과 기금을 재원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가 모두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만큼 정교를 떠나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합의하기 바란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콜류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 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민국의 60년 전, 4월

지난 몇 주간 주말의 달콤한 늦잠을 깨우는 소리가 있었다. 바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운동 소리이다. 짜증스레 눈을 뜨고 투덜대기도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떠올리면 이내 나의 행동이 죄송스러워진다. 올해는 4.19혁명 60주년이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근원을 이룬 그 날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1960년은 이승만 독재정권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강력한 적수

였던 조병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이승만으로 결정된 상황이었다. 관심사는 이승만 정권의 후계자인 이기붕과 야당 장면의 부통령 선거였다. 여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3·5인조 투표, 정치강제 동원, 이기붕의 표가 이미 차 있는 선거함 등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투표수보다 이기붕의 득표수가 더 많은 촌극

도 벌어졌다. 부정선거에 분노한 학생들이 앞장서 이승만 정권을 규탄하기 시작했다. 이에 불을 붙인 것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눈에 최루탄이 박힌 당시 16세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였다. 그 결과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4.19혁명이다. 이승만 정권은 시위대에게 발포까지 하며 진압하려 하였다. 하지만 한번 일어난 민주화의 불꽃은 그 정도로 사그라질 것이 아니었다. 결국 이승만이 하야 후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된다. 이어 들어

선 하정 임시정부 하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하고 8월에 선거를 통하여 장면 내각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한나 아렌트는 혁명을 "사회·정치적 변동으로서 그 결과 정치과정에 시민참여적 헌법적 구조가 창조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이를 볼 때 3.15에 항거한 4.19는 가히 우리나라 민주화의 근간이 되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민석 / 전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 ⚙️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 ⚙️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

